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31권 52호(가해) 2011.11.20

[묵상]



양과 염소의 비유 <6세기, 작자미상, 모자이크, 이탈리아>

주님은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홀어진 양 떼 가운데서
당신의 양 떼를 찾아내고 보살피십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신 양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어디계신지 모른다고 합니다.
주위에 흔해빠진 사랑보다는
예수님께 향한 특별한 사랑을 위해
저의 모든 사랑을 아껴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사방을 헤맸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모든 힘든 이가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사랑이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연민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위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베풀 사랑을 예수님께 베풀 사랑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원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신현태, 세상떠난 레지오단원들 (생)정해홍 요셉, 금자연 야고보&멘디&금현우,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유점이 베로니카, 오진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신태동 요아킴, 박부원, 엄익찬 안토니오, 권순남, 석아자 리나, 강경숙 켄마, 안준환 미카엘,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광섭 가블로, 박준구 요한, 이영록&장연수 마리아&이금룡 베드로, 이정기 클레멘스&이복래 마사&김홍배 루카, 오월봉 데레사, 권기해 도미니카, 세상떠난 레지오단원들, 김완태 다미아노, 홍관 요셉 (생)반컬린 & 반에반, 번복순 베로니카, 김영길 안드레아, 이준 베드로, 권순길 체칠리아,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제키엘 예언서(Ezekiel) 34,11-12,15-17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5,20-26,2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5,31-46

영성제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07	207	207
봉헌	217	269	217
성체	286	306	306
파견	207	215	238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현실 감각

10).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모든 피조물의 의미
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에 앞서 계신”분 안
에서 “존속”한다면(골로 1,17 참조), 그분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사람은 참으로 굳건하고 영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 감각
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전환시키게 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바
로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건설하기 위해 의지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희망
을 두려고 했던 것들이 덧없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
대에, 이러한 현실주의는 특히 필요합니다. 소유, 쾌락, 권력은
언젠가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
적인 확실성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도 남아 있을 확고한 기초
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영원하시고 그분 말씀은
하늘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
대로” 이어집니다.(시편 119[118],89-90) 그래서 이 말씀 위
에 건설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것입니
다.(마태 7,24 참조) 우리의 마음이 매일 하느님께 “당신은 저
의 피난처, 저의 방패, 저는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시
편 119[118],114)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베드로
성인처럼 매일의 행위들을 주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루
카 5,5)

말씀의 그리스도론

11). 이렇게 모든 실재가 복되신 삼위일체께서 하느님의 말씀
을 통하여 만드신 작품임을 볼 때, 우리는 히브리어 저자의 말
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
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
니다.”(히브 1,1-2) 참으로 아름답게도,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미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전달하시는 역사로 제시
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창
세 15,18 참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
셔서(탈출 24,8 참조), 몸소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백성에게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당신을 참되고 살아 계신 한 분 하느님
으로 계시하셨다. <◆계속>

양과 염소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끼어 있으면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양과 염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양도 염소도 각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이라면 털이 곱슬곱슬하고 통통한 게 순하다는 인상이 떠오르고, 염소라면 뿔과 수염이나 있으며 고집이 센 놈들로 기억됩니다. 양은 순해서 타인에게 쉽게 다가가지만, 염소는 고집이 세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이 타인 지향적이라면 염소는 자기중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청와대에 경제인이나 사회각계 유력한 지도자들이 초청되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대통령 옆에 앉거나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초청된 사람 중에서도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거나 재력이 큰 재벌들 순서입니다. 여러 개의 식탁이 있고 저 구석에 앉은 사람들은 대통령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말 한번 붙여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가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보다도, 역사상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훗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쟁겼는지 쟁기지 않았는지를 따지신다고 했습니다. 그 큰 영광에 싸인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커다란 업적이 아니라, 바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건네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옷 한 벌이며, 병자와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갔던 그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 선행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 왕께서 가장 반기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을 쟁겼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양이 되는 것이고, 쟁기지 않았으면 영원히 벌 받는 곳으로 쫓겨나는 염소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양인지 염소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양이겠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기 안에 갇혀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턱에는 수염이 자라고, 우리 머리 위에는 뿔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임성하실 때는 군마(軍馬)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임성하셨으며, 최후의 만찬 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그분이 바로 왕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고 솔직한 기도와 통회로써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염소됨을 없애야 합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는 수염과 타인을 밀쳐내는 뿔을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열쇠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을 쟁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먹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염소인가 봅니다. 염소는 작은 일에도 고집을 부립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체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체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을 독에 성화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늘 11월 20일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걸어온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되돌아보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11월27일 대림 제1주일을 겸손되이 맞이합시다. 이때부터 전례력은 '나해'를 따르게 됩니다.

◆ 제30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일시 :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주례 : 알렉스 살라자르 주교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2부행사 : 각 성당대항 "우리 신부님도 가수다."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가브리엘 성당
- 카풀 : 당일 오전 9시까지 성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11월19일(토) 오후 6시 3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반재현 콜린 ● 금현우 케이든 ● 이혜나 클라라

◆ 남가주남성(영어) 제34차 꾸르실료 환영 울프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오후 7시 회의실
- 본당수료자 4명 : 김병록 요셉, 김낙기 바오로, 황선홍 그레고리오, 고 조나탄
-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문의 : 울프레아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 (310)749-0276

◆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한경숙 안나(PHN, NP 자격) 자매가 카운티 보건면역당국에 요청해 매년 마련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 일시 : 토요 특전미사(19일)후 회의실,
14일 주일 아침 7시30분/11시 미사 후, 친교장
- 대상 : 만18세 이상, 계란 알러지가 없고, 감기바이러스가 없는 분, GBS(심한 마비성 질환) 병력이 없으신 분

◆ 대림환 만들기

- 일시 : 오늘 주일(20일) 낮미사 후 오후 1시
- 장소 : 친교장 * 선착순 23명
- 문의 : 오창애 안나 제대회장 ☎(310)974-2857

◆ 대림특강

- 일시 : 대림절을 맞아 제1주일(27일)의 토요특전미사 / 아침미사 / 학생미사(한국어) / 낮미사 등 네차례 미사강론 중에 특강하십니다.
- 강사 : 이요한 신부(LA 성 그레고리 성당)
- 이강환 마르티노 신부님 시카고 대림특강 : 27일~29일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정하상 바오로 성당 두곳.

◆ 11월 ME Sharing

- 일시 : 27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 강당
- 문의: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경비 : \$1,000(1인당 하루팁 \$10 별도)
- 인원 : 선착순 40~50명
- 신청 : 오늘 주일(20일)까지, * 신청금 \$100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20일(주일) : 토렌스 서 3반(비빔밥 \$3)
- 11월27일(주일) : P.V. 3반(배추된장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낙기	김상규	김옥보	김옥찬	김 옥
	김원모	김윤진	김정엽	나경흠	노찬술	민형기
	박광자	박상준	박영룡	박인식	박종민	석순영
	송준규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윤희동	이정용	이봉덕	이우성	이일길
	이현주	장춘수	정동호	정상문	정해홍	주영석
	주용범	채양석	최의수	최진수	홍광선	
	합계 : \$4,225					
미사헌금 : \$2,893						

성전헌금	김낙기	김옥보	김 옥	김원모	김윤진	김정엽
	나경흠	노찬술	박광자	박영룡	박인식	박종민
	석순영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윤희동	이정용	이우성	이현주	장춘수
	정동호	정상문	정해홍	주영석	주용범	채양석
	최의수	최진수	홍광선			
	합계 : \$3,005					
	감사헌금 : 이봉덕					
한남체인 도네이션 : \$400						

공지사항

◆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11월 2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이 낀 연휴로 인해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 매달 첫째주일 학생미사 1.5세 한인신부님 집전

- 사제 : Fr. 리처드 선우(소속본당 St. Lawrence)
- 셋째주일은 종전대로 St.마가렛메리 본당 신부님 오심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대림 제1주일부터 영어미사(학생미사) 경본이 바뀝니다.

- 새 전례력이 시작되는 11월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북미주 모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정판 영어미사경본을 사용합니다.
- 한영 매일미사 12월호부터 최종 교정을 거친 바뀐 영어미사 경본(주일미사)으로 출판되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요 예비자 교리반 안내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지난 3일 첫교리가 시작됐으나 예비자를 계속 모집합니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5000 Clack Av. Lakewood, CA 90721)
- 내용 : 추억이 있는 본당별 발표 경연대회, 경품 푸짐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이나시오 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피정

- 일시 : 2012년 1월11일(수)~15일(주일)
- 장소 Marywood 피정센터(오픈지카운티)
- 피정지도 : 이인주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독방), 선착순 20명
- 주최 : 미서부지역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 기념미사 일정 연기

- 일시 : 11월19일(토)로 예정되었으나 무기한 연기함
- 성당장소 : 2035 Otterbein Av. Rowland Heights, CA 91748
- 이번에 새로 축성되는 성 가브리엘 성당은 기존의 성 크리스토퍼성당과 성 마리아성당이 합병한 공동체입니다.
- 주임신부 : 한상만 토마스
- 문의 : 사목회장 이항 요셉 ☎(626)965-7553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배태임 안나 961-0942 11/11(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용 요한 539-3377 11/5(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심재은 클레멘스 213-760-7766 11/12(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순자 안젤라 201-320-9930 11/10(목)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합동 반모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남구역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위너 스프링 은천 895-8624 11/19-20(토~일)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린 마리아 985-2882	김금자 데레사 539-9526 1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866-8778 11/1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문종 바오로 796-6763 11/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박진숙 엘리사벳 562-860-8499 11/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회	오후 1시
---------	-------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필리 2,16)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오늘의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유래 없는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이변들은 개발이란 미명 아래자행하는 지나친 환경파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능성이 몇 백분의 일도 안 되는 극히 적은 예외적인 사고라고 변명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에서 일고 있는 시위는 오늘의 경제 형태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강변합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경제적 난국이 이웃 나라로,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새롭고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며,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새로이 요청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군중은 끼니를 잊을 정도로 귀한 말씀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이 경청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하고 선포하시며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삶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 복음은 내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7-28)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에게만 유보된 특권보다 더 가치있다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촉구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권장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할 때 더욱 힘을 받습니다. 우선 본당 단위로 청년, 어르신, 초·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추진해 보도록 권장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로부터 시작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2011년 성서주간을 맞으면서, 하느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으로 하느님과 일치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 이형우 아빠스

☞ 이젠 알아두세요!

사무엘기 하권 24장과 역대기 상권 21장에 의문이 갑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역겨운 일이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꼼꼼한 성경 읽기의 수확이라 반갑습니다. 그 답은 이어지는 10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윗왕이 주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로하고 회개한 사실이 언급되니까요. 따라서 그날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다윗왕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번영이 마치 자신의 공적인 양 우쭐하던 다윗의 심사를 엿보게 되니까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간다”는 진리에 바탕합니다.

때문에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어떤 것을 내가 해낸 것인 양 우쭐대는 마음과 행동은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총을 부인하는 소치입니다. 교만이며 죄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마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여 자녀를 갖는 일마저 산아제한이라는 그릇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않는 오만한 죄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마음, 내 뜻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모습도 그분께서 맡기신 그분의 소유임을 잊고 그분의 뜻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믿음을 거스르는 못된 짓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생각까지 살피시는 세세한 그분을 기억하여 믿음 안에 깨어 살아갈 것을 강력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